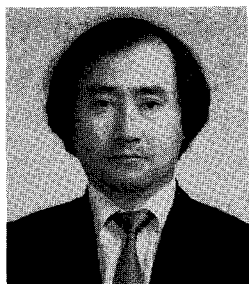


국내 HPAI(H₅N₁), 백신과 살처분 병용의 득실에 대하여



이 덕 선
(현대농장 대표)

국내에 최근 발생한 HPAI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반경 3km 내 무조건 살처분 정책만 고수시 철저한 차단방역조치를 해온 미감염 양계농가 마저 반경 3km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반살처분으로 인해 농장폐쇄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억울한 위험은 우리나라 같은 양계 과밀사육지역에서는 우리 양계농가 누구를 막론하고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정부의 보상재정부담, 살처분으로 인한 인력동원,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미감염농가의 백신 미접종시의 감염위험 증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치 않고, 살처분만 강조하고 있어 전국의 양계농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또, 백신병용 요구에 대해 <백신만 생각지 말고 차단방역을>하며 백신병용을 요구하는 사람은 마치 차단방역의 중요성도 모르고 백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언급하며, 또 국내 HPAI 박멸에서 백신병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재의 상황에선 살처분만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 「백신사용국에서는 HPAI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LPAI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백신을 사용. HPAI는 오로지 살처분이 대처방안」 이라고 언급한 데 대하여

- HPAI가 국내에 발생 전에, 예방차원에서 AI백신을 미리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백신병용 주장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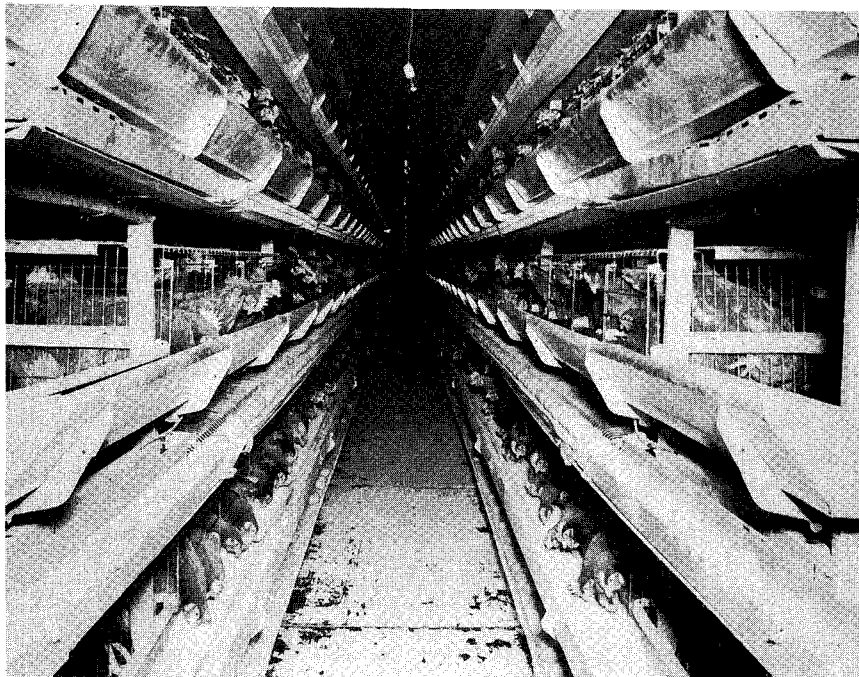
- 백신은 AI발생지역 및 인근위험지역에서, 백신접종 계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양계농가에 한해 공급하여, 동반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 그리고, 백신접종농가도 감염되면 살처분하고, 또 질병종료시는 백신공급을 중단하여, 질병이 토착화됨을 막아야 한다는 백신관리 체계를 강조하였다.

- 백신병용은 AI의 감염과 확산의 위험을 줄이고, 지금같은 동반 살처분으로 인한 미감염 농가의 피해도 줄이는, 차단방역의 중요한 보완적 방편이다.

- H5, H7은 수시로 병원성이 변하는데, 백신 선택에 HP와 LP를 구분해야 하는가?

- HPAI백신은 홍콩과 멕시코에서도 사용하여 상당한 근절효과를 본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태리, 파키스탄도 AI백신 채택 후 더 이상의 HPAI가 발생 안했을 뿐이지, 단지 LPAI에 의한 피해 감소를 위해 백신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며, HPAI에서는 오로지 살처분만으로 대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 미국 동식물검역청에서도 AI 긴급 근절계획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고병원성AI 통제 전략을 세우는 등 선진국에서도 살처분보다는 백신병용정책으로 가는 추세이다.

- 또 최근 동남아 HPAI 발생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감염지역 밖의 대량 살처분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일정기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 우리가 살처분과 백신병용을 요구하는 것은 백신접종계군도 AI의 감염과 확산의 위험을 줄일 뿐, 100% 방어되는 것은 아니므로, 백신을 해도 차단방역을 게을리하여 야외바

이러스에 감염되는 농가는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래서 백신 병용시, 미감염계군의 살처분 피해는 방지되며, 감염계군만 살처분하기 때문에, 백신병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일정기간 바이러스 배출이 살처분 방식보다 더 발생할 이유가 없다.

▶「백신을 전국적으로 사용시를 상정하여, 백신접종 비용과 많은 계군의 모니터링의 문제점, 신고체계의 문제점」 등을 언급한데 대하여

- 우선 HPAI가 최악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살처분만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부터 묻고싶다.
- 전국적으로 확산시, 무슨 인력과 국가 재정 보상금으로 살처분을 감당하겠는가?
- 백신 접종비용을 걱정했는데 아무리 접종비용이 비싸도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 패쇄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고 생각한다. 또 백신가격도 선택에 따라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많은 계군의 모니터링 문제점은 살처분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시, 폐사계의 증가로 작업동원에 적지않은 장비, 인력동원, 환경의 문제점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
- 그러므로 전국으로 확산시 최악의 경우, 국가비상사태로 간주, 백신접종계의 모니터링에 동원할 수의사가 부족하면 전국 수의대 본과생(각 도마다 수의대가 있다.)과 긴급 방역요원을 증원하여 간단한 긴급 모니터링 훈련만이라도 시켜 현장에 투입함이, 살처분 고수정책으로 인한 노력과 비용부담 보

다는 적을 것이다.

- 이러한 관리체계의 어려움 때문에 AI전문가들은 AI발생시 백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신고체계의 문제점은 감염농가의 불신고시에 불이익을 줌으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 또 전국으로 확산시, 살처분만 채택할 때는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또는 가정사육조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백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발병하고 있는 ND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 우리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제1종 전염병인 ND를 제대로 관리해 왔는지부터 묻고 싶다. ND에 백신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토착화된 것이 양계농가만의 책임인가? 그 동안 질병대책위에 참여했던 조류질병학 교수들은 ND근절을 위해 어떤 대안을 당국에 제시하였나?
- ND와 같은 백신사용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HPAI에 대한 백신사용에서, 방역당국의 백신관리를 강조했으며, 백신은 발병지역과 위험지역 및 그 밖의 지역도 백신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양계농가에만 제한하여 공급하고, 질병종료시는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토착화를 막는 백신의 관리체계를 강조하였다.
- 또, AI백신은 야외바이러스 감염계군과, 백신접종계군의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백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병농장으로부터 일정지역 내에 있는 계군 접촉시, 현재 같은 산발적인 발생 경우에 양계장에서 양계장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법(살처분)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현재같이 산발적으로 발생, 양계장에서 양계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없다면 왜 반경 3km 내 미감염 농가까지 살처분하고 있는가? 이 경우에도 확산위험이 있으니까 미감염 양계농가까지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 또, 현재 발생한 국내H5N1의 병원성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 또 우리 같은 양계 과밀사육지역에서 3km 내에 여러 양계농가가 있는데 소독을 형식적이고 게을리하는 농가로 인해 동반 살처분 피해를 당한다면 어느 누가 혼자서만 열심히 소독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 현재 AI발생상황에서 백신병용의 이점은, 차단방역이 제대로 되어있고, 지형적으로 감염위험이 적은 미감염 농장만이라도 백신을 접종하여, 억울한 동반 살처분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또 백신은 감염과 확산 위험도 줄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 백신준비는 필요하며 방역당국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 우선 위에 여러 상황을 열거하며 백신병용이 불가함을 강조하면서, 그 외 최악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가?
- 또 방역당국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민

주국가에서 양계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데 구체적 진행상황을 양계농가에 알려 이해를 구함이 순서가 아닐까? 꼭 방역당국만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가?

- 위에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백신의 불가함을 나열하면서, 내부적으로 막연히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농가는 곧 시행되겠지 하고 방심할 수도 있고, 어느 세월에 시행되겠나 하고 불안하여 사업계획도 못세우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 양계업도 여러 사람의 생계가 달린 직업인데, 정부 정책을 이렇게 막연하게 시행해도 되는가?
 - 비록 최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양계농가들이 제 목소리를 못낼지라도, 양계업도 가족이나 종업원을 포함, 여러 사람의 생계가 달린 직업이며, 관련 여러 산업의 파급효과도 크며, 사회의 중요한 식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일부 몇몇 관련 전공교수들의 권위의식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책을 당국에 건의하여 우리업계를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 최근 외국의 AI전문연구자들은 백신접종계군의 관리 때문에, 양계산업 과밀지역 국가, 특히 우리같이 수출보다는 내수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AI백신사용은 발생 초기에,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또한 차후의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정부당국과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류질병학자들은 업계의 백신병용의 절실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양계업계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 큰 재앙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계**